

협회, 음악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안전음악회 문화행사로 발돋움하는 첫걸음 만들어



음악을 통해 안전문화를 퍼트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황갑주)는 지난 11월 2일 보령시 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안전일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협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행복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강의식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면서 행사 전부터 안전관계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이수중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이시우 보령시장, 안경재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지역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전충남지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며 "불안정한 행동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이 평안한 마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에 실시해 왔던 안전 등반대회나 안전캠페인보다 더 높은 효과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킨 일석이조의 시간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전충남지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음악회가 지역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더 많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

